

# [왈가왈북] 고난의 행군 ④ 대도시의 고통

소셜리스트

<https://youtu.be/9bbEpbjwYPs>

유영호 : 고난의 행군 이야기하니까 옛날 그 시절... 눈시울이 뜨거워지네요...

김련희 : 지금도 생각하면 그 엄혹했던, 그 지독했던 나날,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희 딸이 94년 생인데 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었으니까, 진짜 풀죽 먹이고, 국수 있잖아 **200g**짜리 조그만 것 요만한 한줌 가지고 다섯 식구가 멸건 물에다가 뭔가 풀 같은 것 넣어 가지고 멸절게 해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풀죽 먹고 이렇게 먹다나니까.

홍강철 : 평양사람들이 더 힘들었죠.

김련희 : 평양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유영호 : 여기서는 이제 평양 그러면, 뭔가 특권층이 있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선전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대도시니까 덜 힘들었을거다 싶은데, "대도시가 생각 외로 무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련희 : 제가 평양에서 고난의 행군 3년을 해보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았잖아요. 지방에 나가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은 텃밭, 내 땅이라도 두져 먹을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껍질, 송기떡 있잖아. 목이 딱딱 메가지고 구멍이 막혀서 변도 못 보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송기떡이라도, 칩뿌리 뜯어오고 이런 거 있었는데 평양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책공업대학병원의 양복점에 있었는데, 대학 학생들, 기숙사생 모든 대학들의 70%가 기숙사생들이예요.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보다 지방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학생들, 인민들도 굶어서 배급을 못 주는데 학생들은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국가가. 근데 국가가 쌀을 못대주니까 한달 동안 온 대학이 학업을 중지하고 한 달 동안 몽땅 산에 나갔어요. 학급별로 가서 칩뿌리를 뜯어 온 거예요. 학생들 공부 못하고, 한달 동안 가서 칩뿌리 뜯어가지고 와서, 한 배낭씩 지고 와서 그 칩뿌리를 다 깨끗이 후비고, 씻어서 대학국수(공장) 거기서 국수 눌러가지고 했는데, 남쪽 사람들 흔히 먹는 칩국수, 진짜 호화스럽죠. 완전 귀한거죠. 근데 그때 칩국수는 진짜 죽기 싫어서 먹었어요. 살아야 돼서, 살고 싶어서 먹었어요, 학생들이.

홍강철 : 돌피라는 거 있거든요. 논밭에. 논에 가면, 돌피 있잖아요. 벼의 돌피 있어요.

유영호 : 돌피, 모르겠어요. '피뽐는다' 할 때 그 피?

홍강철 : 예, 그거예요. 그 돌피를 가져다가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그래 간다 말이에요. 갈아서 그거 돌피 가지고 이런 '꼬장떡'이라고. 그런 것도 만들어 먹고 그랬죠. 도토리, 산에 올라가서... 그 때 또 고난의 행군 때 도토리 참 많이 열렸어요. 밤도

많이 열리고, 왜 그랬는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고난의 행군, 도토리가 살렸다"고. 미국놈들이 우리가 굶겨죽이지 않은 게... "도토리 잘 될 줄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걸 타산 못했다"고.